

# 어린이에 올인하니 사찰 미래 밝아졌다

서울 화계사 어린이·청소년 법회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는 최근 전국청소년불교교리경시대회, 영어 자타카 암송대회, 찬불울동제, 연꽃노래잔치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불교계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참석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상은 휩쓸고 있다. 상도 상이지만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법사 스님, 지도교사, 포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유독 눈에 띈다. 어른들은 행사장에 “애들이 자장면 사줄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와 아이들을 격려하는 등 사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포상제도가 없는 행사에도 마찬가지다. 여름불교학교, 겨울스키캠프 등에서도 화계사 어린이들은 참석률은 물론 활동도 적극적이다.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5월 1일 평범한 주말, 화계사 법회 현장을 찾았다.

이상연 기자



화계사 어린이 법회시간, 어린이들이 김진아 지도교사를 둘러싸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어린이·청소년이 우선”

화계사 어린이 법회는 대적광전 2층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10시 진행되는 법회는 제1부 법회, 제2부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체험활동은 아이들이 일요일법

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법회를 여는 목적이기도 하다. 화계사 어린이법회는 사찰에서 뛰여 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체험활동 시간에는 피구, 축구, 기체조, 만들기, 생일파티는 물론 자체적으로 <반

야심경> 암송대회 등 각종 대회를 연다. 아이들이 모든 것에서 해방돼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날은 7일 연등행렬 울동연습을 위해 공양을 마치고 한 번 더 모였다. 울동 연습을 마치고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법회 임원 회의도 진행됐다.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법회에서도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진행과 보조역할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회의도 직접 진행하도록 이끌었다. 법회에는 지도법사, 지도교사, 보조교사 외에 어린이법회에 발 돌을 보내고 있는 내인원 씨가 있었다. 나 씨는 3년째 법회에 참석해 법회 뒷바라지를 한다. 방석 나르기, 상 피기, 간식 나눠주기 등 온갖 잔심부름을 다 하고 있다. 주말부부인 내인원 씨는 주말이면 어린이 법회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 시간을 보낸다.

“아내는 자모회 활동을 하고,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일요일법회에 참석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혼자서 키는 아이들을 위한 단체생활은 물론 부처님 품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화계사만의 비법은 어린이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법회에서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법회는 의미가 없다. 화계사는 사찰, 자모회, 지도자가 혼연일체가 돼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보듬는데 힘쓴다.

어린이청소년을 포교하고 육성하는데 재정만 있다고 되는 것도, 간사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되는 것도 아님을 오랜 경험 속

로 사용된다.

자모회는 간식 후원, 울동복 및 활동복 세탁 등 법회나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은 물론 법회운영 기금을 마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의 기획에도 적극 참여한다. 어머니들은 간식도 사서 먹이기 보다는 웬만한 요리는 직접 만들어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 돕는다.

**사찰 지원**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에서

사찰에서 지원한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다양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회지도자**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은 법회지도자들이다. 어린이청소년법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구하기 힘들뿐더러 이들이 장기간 법회를 이끌어 가지 못하는 데 있다. 하지만 화계사에는 8년째 어린이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황학현 지도법사는 물론 최소 5년 이상의 지도교사들이 많다.

## 자모회·지도자·사찰이 어린이 위해 한마음 전문 지도법사 등 우수한 인적자원이 특징

에서 체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포교에는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관심, 법사와 간사들의 재능과 노력이 전부 필요하다.

**자모회** 화계사 자모회는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어머니 모임이다. 이날 자모회는 차 절이용 연등을 만들고 있었다. 3월부터 만들기 시작한 연등은 개당 5000원에 판매해 어린이법회 운영기금으

로 사용하는 겨울 스키 캠프나 여름불교학교 등 화계사 어린이들이 가는 곳에는 늘 ‘화계사 버스’가 함께 한다.

화계사는 사중(寺中)의 버스 사용에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한다. 차량 지원은 물론 참가비도 가능한 받지 않는다. 특별히 겨울스키캠프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참가비만 학생이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 어린이 법회 출신 커서 동생들 지도

화계사 입구에는 파란색의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점수받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화계사 학생법회 출신들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다닌 학생부처 시작해 어린이·청소년 법회 출신들이 성장해 사찰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

대학생들은 학생법회에서 독립해 5월 15일 대학생법회를 창설한다. 대학생법회는 앞으로 사찰 내외에서 동생들을 돌보거나, 행사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법회에 참석했던 학생이 어느덧 성장해 대학생 법회를 창설하게 됐다. 대학생(왼쪽) 법우가 학생법회 동생에게 풍물놀이를 지도하고 있다.

# 단박 깨칠 수 있다

◆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 뿐이다. 정진하기에 따라서는 단박 깨칠 수 있다. 석가모니의 마음과 말씀을 배우는 본각선교원 석가대학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본각선교원 = 시각선원 + 석가대학, 원장 고준환 경기대 총신명예교수)

강 의 내 용			
과 목	교수강사	시 간	교강사 약력
마음과 수학	임종록 교수	월/오후 2시 ~ 5시	한양대 수학과, 대학원서 '마음과 수학' 강의
불교와 예술	유종민 교수	화/오후 2시 ~ 5시	중앙대 미술대학장 역임, 전교불련회장, 조각가, 시인
위패사나 명상과 심신조화	김선숙 교수	수/오후 2시 ~ 5시	동덕여대 대우교수, 위패사나 명상연구, 마음치료센터 소장
선시감상	이은운 선생	목/오후 2시 ~ 5시	전중앙일보 편집국장, 금강신문사장, '선시' 등 저서 다수
깨달음과 마조어록	원 오 스님	금/오후 2시 ~ 5시	선승, 화엄정사 주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 저자
과학자가 본 불교	이 준 교수	월/오후 6시30 ~ 9시20	건국대 화공학과 명예교수, 전교불련회장, 영화촬영 전문
불교와 풍수지리	김문웅 선생	화/오후 6시30 ~ 9시20	한진그룹 기획조정실장, 한국자연지리학회 회장
법화경 통독	고준환 교수	수/오후 6시30 ~ 9시20	교불련 초대회장, 불승종 법사, '선명나는 한국사' 저자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교수	목/오후 6시30 ~ 9시20	홍익대 명예교수, 바른법 연구원 이사장, 무료급식소 운영
유·불·도교 비교론	최동락 법사	금/오후 6시30 ~ 9시20	성공관대 유학철학과 박사과정, 신신도 법사, 풍류사랑 대표
불교입문	이서연 선생	월/화/오전 10시 ~ 11시30	전해동불교신문 편집장, 설법연구원 위원, 여류 시인
승만부인경	이인자 교수	수/금/오전 10시 ~ 11시30	경기대 명예교수, 불교여성개발원장, 승만부인 연구회장
유마경	무 진 스님	목/오전 10시 ~ 13시	삼삼부처 상무, 불승종 법사, 옹해사 주지

○ 깨달음 중심의 인간 불교 ○

本覺禪敎院(본각선교원) 釋迦大學

☎ 02)762-4848 / 070-4406-484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http://blog.naver.com/aha10579 www.cafe.daum.net/BonGagAcademy

## 석가대학 수강생 모집 (6월 1일 개강)

◆ 토요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부처와 부자학 교수진용

- 박세일 서울대 교수(불교와 한반도)
- 유필화 성공관대 교수(불교와 경영)
- 소광선 서울대 교수(불교와 동양의학)
- 우영선 경기대 교수(불교와 경제)
- 최한수 건국대 교수(종교와 정치)
- 우희중 서울대 교수(불교와 생명과학)
- 신민교 원광대 교수(종교와 동양의학)
- 민희식 전한양대 교수(불경과 성경)
- 고준환 경기대 교수(선명나는 한국사)
- 윤명철 동국대 교수(천년해륙강국 고구려)
- 무진 옹해사 주지스님(불경과 천부경)
- 연기영 동국대 교수(불법과 법)

☞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수시로 수강 신청할 수 있음.

☞ 대학개강은 6월 1일부터이며, 5월중에 교수나 강사별로 1회 무료 강의 있음.

☞ 수강료는 토요특강은 한달에 5만원이고, 평일강의는 2개월단위로 하되, 1개월에 10만원으로 한. 평일 5과목이상 수강신청하면 수강료의 20%를 할인해 줌. 전과목 수강자는 할인율 30% 적용하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료증을 수여하며, 이는 후일 본각대학원 대학교가 설립될때, 입시에 반영할 예정임.

◆ 시각선원 선법회

시각선원 선법회는 5월 1일부터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등을 소의경전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선법회를 실시함.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프리(free)로 들을 수 있으며, 법사는 선재선사와 선교원 원장임.

◆ 세계불자연합회

본각선교원은 연계단체로 세계불자연합회를 결성하여, 한국불교와세계불교 중흥이라는 보살도 실천에 나섭니다. 우선은 시각선원 거사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한국거사협회와 세계불자연합회를 순차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불자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전 법조인 불자회장 전창열 변호사 금강신문사 이은운 사장(한국거사협회 대표),정대익(전 청와대 국가안보수석) 전 러시아대사, 고준환교수 등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 6월 토요특강 일정

- 6월 4일 : 유필화 - 불교와 경영과 시의 만남
- 6월 11일 : 우영선 - 불교와 경제
- 6월 18일 : 최한수 - 종교와 민주정치
- 6월 25일 : 민희식 - 불경과 성서

오시는길

